

## 대상, 사회공헌팀 신설 지원활동 강화

대상이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나섰다.

대상은 4월19일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3월 홍보실에 사회공헌팀을 신설하고 4월부터 전사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회공헌팀은 사회공헌 활동 중장기 계획 수립,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회공헌 기금운 영·관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대상은 특히 기존 사업장 단위별 소규모 모임을 정비해 45개의 봉사팀으로 재편한 뒤 이번 주부터 각 봉사 팀이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농촌 봉사, 복지시설 아동 방과후 교실 지원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상은 4월19일 오후 임동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0여명이 전농동 가나안쉼터에서 무료급식에 나서는 것으로 봉사활동을 본격화했다.

대상 관계자는 “봉사활동은 근무시간에 이루어져 근무로 인정받게 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며 “1인 당 1만원을 기부하는 행복나눔 기부 릴레이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릴레이는 사장이 먼저 1만원을 기부하고 내주에 주변 2사람을 추천하고 2사람이 각각 또 다른 2사람을 추천하는 식으로 이어지는 모금방식이다.

특히, 대상측은 사원들이 기부하는 만큼의 금액을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적립해 모두 불우 이웃돕기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흥규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20>